

# 1960년대 신세대 비평가의 등장과 참여문학론

- 『비평작업』의 비평사적 의의

이 명 원\*

## 차 례

- |                         |                       |
|-------------------------|-----------------------|
| I. 담론분석과 욕망             | IV. 몰주체적 순수문학 비판 및 참여 |
| II. 비평의 재출발- 사회발전의 엔    | 문학론의 제창               |
| 진, 정신의 광맥탐사             | V. 『비평작업』의 비평사적 의의    |
| III. '평단소송'을 통한 기성문단 비판 |                       |
| 의 논리                    |                       |

## I. 담론분석과 욕망

한국 현대비평사의 궤적을 뒤돌아볼 때, 1960년대는 획시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시기에 시작된 문학매체의 경합과 문단의 재편과정은 얼마간의 견해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의 문학장(文學場)의 기원을 이루고 있다. 통념적으로 말한다면, 이 시기는 김동리, 서정주, 조연현 등의 일제말기 신세대들이 주축이 되고, 거기에 한국전쟁 이후에

\* 서울디지털대 문예창작학부 전임강사

집단적으로 출현한 이른바 전후세대 문인들이 매체 『현대문학』을 중심으로 결집했던 이른바 ‘순수문학’의 절대성이 균열되는 시점이면서, 1960년의 4.19 혁명을 통해 실현된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민족의식의 심화를 일시적으로나마 경험했던 신세대들이 바야흐로 새로운 비평적 지향을 자각하고 실천하기 시작했던 시점이기도 했다. 그것의 자연스런 결과로 문학장 역시 일종의 구조변동이라 해도 좋을 세대론적인 변화와 문학매체의 이합집산이 대단히 활발하게 벌어졌던 것인데, 특히 4.19 혁명을 전후하여 대학에서 문학수업을 받고 있었던 1960년대 신세대의 활약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점이기도 했다.

문학사의 통념으로 볼 때, 이 시기는 흔히 『창작과비평』(1966)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문학세대와 이후에 창간된 『문학과지성』(1970)을 중심으로 결집한 자유주의 문학의 대립구도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오늘의 문단상황을 토대로 과거의 문학사에 대한 섬세한 접근 없이 구획한 논리로, 비유컨대 만들어진 전통(invention of tradition)에 해당하는 시각도 있음이 사실이다. 요컨대 오늘의 문학장의 역학관계를 그대로 과거에 소급하여 문단적 질서를 상상적으로 재구축하려는 비평적 기획이라는 비판이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강력하게 제기되어 왔다.<sup>1)</sup> 특히 이러한 비평사적 검토의 시선변동은 종래의 비평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학권력’, ‘상징투쟁’, ‘계보학적 시각’ 등을 키워드로 한 방법론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sup>2)</sup> 종래의 연구경향에 대한

1) 가령 권성우, 「1960년대 비평의 세대론적 전략과 새로운 목소리」, 『1960년대 문학연구』, 예문, 1993; 이명원, 『타는희』, 새움, 2000에서의 1960년대 신세대 비평가의 ‘세대론적 인정투쟁’을 둘러싼 분석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논의와 함께, 임영봉, 『한국현대문학비평사론』, 역락, 2000과 하상일, 「1960년대 현실주의 문학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2005에서는 『한양』, 『상황』, 『창작과비평』, 『청맥』 등의 매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1960년대 비평계의 성립과정을 다채로운 문학이념 및 에꼴의 결합과정으로 설명하려는 시각을 마련했다.

2) 강준만·권성우, 『문학권력』, 개마고원, 2001; 이명원, 『과문』, 새움, 2003; 문학과 비평연구회, 『한국문학권력의 계보』,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4; 임영봉, 『상징

이러한 비판적 연구를 통해서, 젊은 연구자들은 1960년대 비평사의 성립 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정전(canon) 구축과정과 해석공동체(interpretive community)의 담론운영 및 해석전략의 메커니즘을 상대화하는 시각을 통해, 비평사의 창의적 재구성에 대한 욕망을 강렬하게 환기시켰다.

문학사 연구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담론은 표면적으로는 가치중립성(value-freedom)을 견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실제의 문학현장에서 경험하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은 그러한 담론조차도 실제에 있어서는 글쓰기의 참 동력으로서의 욕망을 은폐함으로써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욕망의 문학사도 가능할 것인데, 특히 비평의 영역에서는 글쓰기에 임하는 비평가 또는 해석공동체가 동시대의 문학현장에서 심각하게 느꼈던 결핍과 그것을 지양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여과된 형태로 추출되는 문학적 이념의 기본형을 밝히는 데 소중한 기여를 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발견하게 된다.

모든 세대에게 그러한 것이지만, 특히 1960년대에 등장한 신세대 비평가들은 그런 강렬한 욕망의 소유자였고, 어느 세대보다도 그들 세대 자신이 심각한 문학적 결핍 속에 빠져 있음을 자각하고 있었다. 특히 본고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비평작업』(1963)의 동인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당대의 신진비평가 또는 예비비평가들의 결핍과 이로 인한 욕망은 지극한 것이어서, 그것이 이후의 문학적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집단적 동력으로 전화되는 풍경도 자주 발견된다. 그러나 그 발견은 그들의 결핍과 욕망에 적극적으로 공명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또 다른 욕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는 공명(共鳴)의 시선을 요구한다.

이 글은 창간호가 종간호가 되어야 했던 한 동인지의 필자들이 견지했던 당대 문단에 대한 신진비평가들의 결핍과 갈증, 그 욕망에 적극적으로 공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쓰여진다. 『비평작업』에 대해서는 대중

---

투쟁으로서의 한국 현대문학비평사, 역락, 2005 등의 저작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들은 물론이고 연구자들조차 이들의 작업에 대해 적극적인 공명을 시도한 바 없으며, 단편적인 언급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조차도 스케치에 머문 것이어서 비평사적 의미부여가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sup>3)</sup> 필자는 이러한 공명을 통해서, 『비평작업』의 동인들은 물론 이른바 1960년대 신세대 비평가들이 공히 견지했던 당대의 현실적·문학적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의 일반성을 추출함으로써, 1960년대 신세대 비평의 형성근거를 묻고자 하는 부가적인 목적도 있음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 II. 비평의 재출발- 사회발전의 엔진, 정신의 광맥 탐사

『비평작업』은 정오평단(正午評團)의 동인지로 발간일은 1963년 1월 10일로 되어 있고 시사영어사에서 발행되었다. 정오평단의 구성원은 모두 5명이었는데, 이들은 당시 각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던 대학생이거나 갓 졸업한 처지에 있는 문학청년들이었다. 이광훈(고려대 국문과), 임중빈(성균관대 국문과), 조동일(서울대 불문과), 주섭일(서울대 불문과), 최홍규(중앙대 영문과) 등이 정오평단의 회원이었다. 간략한 소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몇 가지 점에서 공동의 관심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이들이 대학에서 체계적인 문학교육을 받은 문학전공자라는 점은, 구세대 비평의 이론적 피상성을 적극적으로 공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전문가 의식에서 나온 자부심이라 할 터인데, 특히 한국문학과 외국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번역이 아닌 원전 자료 해독능력의 보유는 이들이 『현대문학』을 중심으로 결집된 이른바 문협정통파나 백철과 같은 구세대 문인들이 보여주었던 실존주의나 전

3) 허윤희, 「1960년대 참여문학론의 도정」, 상허학회 편, 『희귀잡지로 본 문학사』, 깊은샘, 2002에서 간략하게 『비평작업』의 존재가 언급된 바 있다.

통에 대한 논리적 허약성을 과감하게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들 신세대 예비문인들은 『비평작업』을 통해서 구세대 문인들의 순수문학 논리와 실존주의 이해, 그리고 허약한 휴머니즘을 종횡으로 비판하는 태도를 선보이고 있다. 그 비판의 핵심을 무리하게 요약하면 결국 이들 구세대의 비평이나 문학론이 개념에 대한 초보적 이해도 없는 상황에서의 인상주의 담론이나 표어화된 수사(修辭)로 시종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던지는 한편, 그들은 『비평작업』의 지면에 실존주의에 대한 루카치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는 싸르트르의 「실존주의와 맑스주의」(주섭일 역)를 번역해서 소개하는가 하면, 폴 엘뤼아르의 「평화의 얼굴」(조동일 역)이라는 번역시를 게재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번역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간접적으로 현대 서구문학이론에 대한 자신들의 학습역량과 문학에 대한 확대된 시야를 과시 또는 환기하면서, 김동리와 조연현, 그리고 백철 등의 구세대는 물론 그들의 앞선 세대로 비평적 영감을 부여했던 이어령 등의 비평을 강력하게 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초보적인 사실과 함께 역시 주목되는 것은 이들이 공히 4.19혁명의 역사적 기억을 가장 젊은 감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대학초년 시절에 4.19혁명을 체험했으며, 연이어 벌어진 5.16 쿠데타를 경험했다. 이들이 『비평작업』을 세상에 제출한 것은 1963년 1월인데 이 시기에 이르르면 우리가 이른바 4.19 세대의식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법한 감각이 비로소 확립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여기에 있다. 이들은 「권두선언」에서 기성의 문화상황을 “언어 없는 시민”에 비유한 후 “기성의 질서와 일대 수술을 시행한다”는 신세대 특유의 과감한 자기선언을 다음과 같이 개진하고 있다. 조금 분량이 길지만 이들의 창간선언을 인용해 보기로 하자.

세계가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이때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처럼 낡아가야 한단 말인가. 한국의 현대는 봄을 맞이하자마자 어느새 단풍을 날리고 있다. 나 어린 세계의 고아면서 노구를 이끌고 황혼을 재촉하는 현문단에는 정녕 <위대한 여름>이 와야만 한다.

더욱이 현대가 비평의 시대라 하지만 우리는 비평의 툰드라 지대에서 원시적인 생활과 문학을 반추하고 있을 뿐이다.

과거가 역사의 편이라면 현실은 우리 스스로의 것이며 오늘 우리의 모험은 미래적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비평의 참가> 없이 정신의 대화와 사상의 준령을 갈망할 수 없기에 먼저 우리는 <여름날의 원정>임을 선언한다.

감정과 관념에 급급한 나머지 공허하기 짝이 없는 반세기, 인간없는 지대의 주제 없는 주택에서 우리는 이때껏 언어없는 시민이었다. 이 온갖 문학에 대한 책임을 그동안의 비평이 전담해야 할줄 안다.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비평, 아니면 있어서 해독만 끼치는 따위의 비평을 우리는 단호 거부한다. 여기 시나브로 <비평의 재출발>은 고개를 들고 있다. 진정한 비평활동은 언제나 사회발전의 엔진이며 비평가는 정신의 광맥을 발굴해가는 광부와 같다. 어려운 때일수록 비평의 길은 가시밭길이다.

시대는 비평을 낳아 기르고 비평 또한 시대를 지켜야 한다. 때 늦으나마 우리에게 <비평공화국>의 태동을 봄은 이 때문이다.

역사와 싸워야 할 필연성 앞에서 우리는 기성의 질서와 관련에 대한 일대 수술을 시행한다. <새로운 무엇>이 그림고 아쉽다면 그것은 인간 자체에 대한 문제의 제기과 창조를 다짐하는 형전이라 믿고있다. 파괴가 우리의 만능이 아님은 물론, 그것은 주체형성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몸 전체로 치러야 하는 홍역이기만하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초토 작전 끝에 장송곡을 목 놓아 합창한다. 그것은 찾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는 젊은 인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겐 부단한 비평과 헌신적 작업 속에 자아발전의 길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광란 이전의 준엄한 <이반>인 동시에, 승복을 걸치지 않은 <도니쌍 신부>의 초상임을 선언한다.

<새로운 가치창조>가 우리의 지상과제이다. 이 값진 문화건설은 새 인간의 탄생에서라고 신앙하면서 우리는 그 산파의 직분에 있음을 밝힌

다. 아울러 우리는 그 어떠한 우상도 단호 이를 규탄함과 동시에 스스로 우상의 재현을 용납하지 않는다. <테르미들>의 순수라는 성곽의 벽들장을 움켜잡고 발버둥치는 그들만의 신화는 이제 일조에 파멸될 운명임을 명심하라.

문학의 창조와 비평을 위하여, 오늘 비평공화국을 사수하는 파수꾼으로 새로운 현실을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형제로서 함께 손잡고 있다.<sup>4)</sup>

위의 창간선언에는 문학적 신인이 흔히 그렇듯, 기성세대와 현실에 대한 과감한 부정정신과 새로운 현실의 구축을 촉구하는 건설에의 의욕이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령 “현대는 봄을 맞이하자마자 어느새 단풍을 날리고 있다”라는 은유적 표현의 경우, 이들 동인들이 바라보는 현실 인식의 일단을 잘 보여준다. 또한 순수문학을 “테르미들”, 즉 역사적 반동(thermidor)으로 규정하면서, 기성의 문단적 질서의 붕괴와 파멸을 선언하는 것이 그렇다. “역사와 싸워야 할 필연성 앞에서 우리는 기성의 질서와 관련에 대한 일대 수술”을 하겠다는 이들의 선언은, 일단 그 선언의 과격성만을 고려하자면 그들이 비평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급진적 개입을 하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환기시킨다. 이들이 창간선언에서 밝히고 있는 문제의식의 요체는 기성의 문학 질서와 구세대의 권위에 대한 ‘해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5)</sup> 이것은 신세대 문인들이 향후 구세대를 비판하면서, 자기 세대 출현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일반 문법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들 세대들이 공히 견지했을 법한 세대의식을 추출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산문적 진술로 뿔어져 나온 명시적 발언을 거론하는 것도 유의미한 일이겠지만, 당시에 이들이 견지하고 있었을 내면풍경의 일단을 『비평작업』에 수록된 조동일의 장시 ‘춤

4) 「권두발언: 새 시대의 가치창조를 위하여」, 『비평작업』, 시사영어사, 1963, 2-3쪽.

5) 임영봉, 「4.19세대 비평담론의 형성과정」, 『상징투쟁으로서의 한국 현대문학비평사』, 보고사, 2006, 137쪽.

추는 의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 문학평론가로 또 탁월한 문학사가로 활동하게 될 조동일이 한 편의 시를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모든 좋은 시가 그렇듯, 그것을 산문적 진술로 요약하는 것은 어렵다. 조동일의 「춤추는 의식」 역시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 유장한 어조의 장시를 거듭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적어도 조동일 자신, 범위를 넓히자면 이들 『비평작업』 동인들이 견지하고 있었던 현실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의 일단을 의식적·무의식적 층위에서 발견할 수 있을 듯하다.

「춤추는 의식」은 20대의 청년이 항용 표출할 법한 질풍노도의 감성과 비록 명료한 언어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출렁거리는 이미지를 통해 범람하는 현실에 대한 고뇌가 잘 드러나 있다. 이 시를 읽어나가면서 느끼게 되는 최초의 감각은 그 청년의 고뇌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실존감각’으로 명명하는 것이 적당할 법한 깊은 절망감이라는 것이다.

벗어날 길 막혀/ 숨 태우는 막바지마다/ 상륙해 내려오는 산 그림자/  
어이 할거나 우리 모두 날개쪽지라고는 없어/ 어두운 뒤쪽으로 질려 꺼  
지다가/ 방 안에서 이불 속에서/ 한 몽치 戰慄로나 말라 붙어가고, 나문  
지 달인지/ 남을 모든 것 웃고 있으니// 더 파고들 구석도 없는 너와 나  
눈먼 살덩이/ 애써 간직해 온 생명을 流産으로 다 쏟아내고/ 등골 마디  
마디 뼈격거리며 떠나가야만 하나/ 시궁창으로나 휘감겨 내려/ 헤어나  
올 수 없다는 곳/ 어디?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는 흙벽의 메아리// 마  
침내 표류되는 건/ 저편의 어느 기슭/ 밥찌꺼지 떠내려갈 허구 많은 날/  
이름도 의미도 없는 햇살을 쬐이며/ 허공에서 삭고 있을 古鐵 부스러  
기.<sup>6)</sup>

「춤추는 의식」의 도입부다. “우리 모두 날개쪽지라고는 없어”라는 표현이야말로 이 시의 지배적인 정조를 형성한다. 요컨대 비상하려는 의지를 거세당했다는 것이고, 시적 화자의 일상이란 “시궁창”과도 같은 현실

6) 조동일, 「춤추는 의식」, 『비평작업』, 시사영어사, 1963, 106쪽.



속에서의 삭고 있는 “古鐵 부스러기”에 불과하다는 자학에 가까운 정서가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춤추는 의식」을 지배하는 지배적인 정서는 자학이며, 이 시를 충만하게 뒤덮고 있는 것은 죽음의 이미지다. 이 시의 도처에는 죽음과 비명,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절망이 가득차 있다.

그런데 이 자학과 죽음의 이미지가 다만 청년기의 자의식으로 멈추지 않고, 역사적 감각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이 시의 끝부분에 조동일이 다음과 같은 발언을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쓴 것임을 밝혀 둔다.”<sup>7)</sup> 『비평작업』이 1963년 1월에 출간되었으므로, 이로부터 3년 전이라면 1960년이 된다. 조동일이 시의 끝에 굳이 「춤추는 의식」의 창작시점을 명기하고 있는 것은 우회적으로 이 시가 1960년의 4.19 혁명의 실패와 모종의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정을 수용할 경우 이 시의 수용맥락은 그것이 단순히 청년기의 내면적 방향이 초래할 법한 유포의식과 이로 인한 절망과 자학의 개인적 표백으로 그치지 않고 역사적 절망으로 확대되는데, 이 시의 종결부는 그것의 초인적 극복을 촉구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모가지를 구부러/ 허파로 날뛰면/ 조여드는 산천을 녹여버리고 말거  
라고, 지글거리는 언덕바지마다/ 가슴팍 뒤틀러/ 온종일 헤메는가/ 담  
벼락 허우적거리며/ 울분터지는 턱주가리마다/ 굶거리나 하는가/(.....)  
빙글빙글 맴돌아라/ 복구명에다 황칠하고 별정계 맴돌아라/ 살덩이마다  
불타오르고 있는/ 죽음은 화톳불/ 생피마시던 祖上들이 그 언저리서 춤  
추듯이/ 우리네 地球가 太陽 둘레를 돌듯이/ 미구 휩쓸려 돌며, 몸서리  
치고 튀겨나가며/ 두 힘에 찢겨서 한 순간도 멈추지 못하고/ 어지러히  
숨 막혀/ 무덤 주위를 돌며, 그 밑층을 폭발시켜라/ 돌맹이마다 하늘을

7) 위의 책, 111쪽.

터트려/ 고조 할애비의 넓적다리까지도/ 산천을 뒤덮으며/ 장구를 두들겨/ 소용돌이쳐 오르는/ 온 누리의 잔치/ 태초의 기쁨을 물거품으로 품으며/ 身相 없는 바다여, 法相 없는 바다여, 화려하게 들끓어 올라라, 명든 몸둥이 속에/ 地獄 밑바닥까지라고 휩쓸어나가다/ 쓰레기로 버려져도/ 담벼락을 박차고/ 죽음을 處刑하련다/ 만세 만만세!

지속적으로 절망과 자학의 정서를 노출하던 시적 화자는 종결부에서 “화려하게 들끓어 올라라”고 외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밀층을 폭발 시켜라/ 돌맹이마다 하늘을 터트려” 또는 “죽음을 處刑하련다/ 만세 만만세!”라는 결의와 극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비장미마저 느껴지는 종언이라 할 수 있는데, 절망의 내용이 그러하듯 시적 선언과 극복의 내용물 또한 명료하게 요약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가 『비평작업』이 추구했던 문학사적 건설에 의욕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수록된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이들의 창간선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특히 이들의 비평에 대한 자의식이 당대의 현실 및 사회에 대한 개입의 필연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동인행위가 ‘비평의 재출발’에 있음을 선언하면서, 그 내용으로 “진정한 비평활동은 언제나 사회발전의 엔진이며 비평가는 정신의 광맥을 발굴해가는 광부와 같다”고 선언한다. 그러한 선언의 뒤에서 “시대는 비평을 낳아 기르고 비평 또한 시대를 지켜야 한다”는 문학과 현실의 유기적 관련성에 대한 지향을 재차 천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들이 비평을 단순하게 문학적 구세대를 향한 문단지형의 변모로 한정시키지 않고, 더 넓은 범주에서의 ‘시대정신’ 찾기의 일환으로 사고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환기시킨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흥미롭게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이러한 비평의식이 동세대라고 할 수 있을 이른바 『산문시대』 동인파도 유다른 의식의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산문시대』는 1962년 6월에 1호가 발간되어 1964년 9월 5호까지 발간된 동인지다. 이 동인지에는 『비평작

업』의 동인들과 동세대인 김현, 김승옥, 최하림, 김치수, 염무웅 등 서울대 문리대의 학생문인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늘의 시점에서는 모두 4.19 세대로 거론되고 있지만, 『비평작업』이 ‘사회발전의 엔진’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던 것에 비하자면, 『산문시대』는 다분히 문학주의적인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 연구자가 적절히 밝힌 것처럼 『산문시대』에는 4.19의 역사적 체험은 추상적이거나 단편적인 언급으로도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의 작품 역시 개인적 내면과 의식의 흐름을 주제로 삼고 있다.<sup>8)</sup> 실제로 『산문시대』의 창간선언의 도입부는 그것을 잘 보여준다. “대초와 같은 어둠 속에 우리는 서 있다. 그 숭한 언어의 혼란 속에서 우리의 정신은 여기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다.”<sup>9)</sup> 그렇게 본다면 비평을 ‘사회발전의 엔진’으로 간주하는 『비평작업』 동인들과 현실을 ‘언어의 혼란’으로 파악하는 <산문시대> 동인들의 태도는, 그들이 현실을 환멸과 절망의 구조로 파악하는 것에서는 일치하면서도, 이에 대한 문학적 대응은 사뭇 차별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요컨대 『비평작업』 동인들은 환멸로 파악된 현실에 대한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실천의 한 방식이 새로운 비평의 전망이라고 본 것인데 반해, 『산문시대』 동인들은 언어와 내면에 집중한 셈이 된다. 이러한 의식상의 섬세한 차이, 이른바 4.19 세대의 의식분화가 자못 명료한 방식으로 노출되는 것은 1970년대에 이르러서 일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산문시대』에 대비되는 『비평작업』의 의식의 차별성은 역사적 주체로서의 4.19 세대의 문학사적 의무를 자각하면서 당대의 문학사에 개입하고자 한 의식의 각성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8) 『산문시대』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이 책에 실린, 서영인, 「『산문시대』와 새로운 문학장의 맹아」에서 개진된 것이다.

9) 「선언, 『산문시대』, 제1호.

### Ⅲ. ‘평단소송’을 통한 기성문단 비판의 논리

『비평작업』의 권두언을 읽은 후에 페이지를 넘기면, 다소 기이한 제목의 소송기록이 등장한다. 비평이 판관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은유는 지금도 흔한 표현인데, 실제로 『비평작업』의 동인들은 판관이자 검찰의 소임을 자임하면서, 당대의 기성비평가를 판단의 법정에서 세우고 있다. 피고 격으로는 세 명의 비평가들이 호출되었는데, 백철과 조연현의 경우는 그들이 타기해마지 않았던 구세대 비평가라는 점에서 납득할 만하지만, 그들 자신에게조차 강렬한 영향력을 끼친 이어령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평문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평단소송’은 ‘정오평단(正午評團)’ 명의로 제출되어 있다. 말하자면 한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이들 동인들이 공통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당대 평단에 대한 생각들을 집단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비판을 뒤집어 보면 자기 세대 비평의 지향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손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동인집단의 이름으로 비평이 발표됨으로써, 비평적 논점을 둘러싼 책임소재가 애매해진다는 점도 일단 지적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평단소송’에서 전개된 이들의 비판적 견해가 이후의 연구자들에게 ‘인상비평’으로 치부된 데에는 이런 집필형식 역시 한 원인이 되었던 듯싶다.<sup>10)</sup>

10) “『비평작업』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평단소송’이란 난이다. 백철의 전통론, 이어령의 순수지향적 특성, 조연현을 중심으로 한 기성 문단에 대한 맹비판이 이루어진다. 이 세편의 글은 익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때문에 ”이젠 펜을 꺾으시오 “ ”그럴 자신쯤 없대서야 일찌거니 자진폐간을 서두르는 게 현명책일지 모르다“ 등의 감정적인 필치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혈기왕성한 학생비평가들의 첫 출발은 이렇듯 거칠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감과 함께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사라질 운명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이러한 인상비평을 낳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허윤희, 『1960년대 참여문학론의 도정』, 상허학회 편, 『희귀잡지로 본 문학사』, 깊은샘, 2002, 103쪽.

‘평단소송’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평문은 모두 세 편이다. ① 「위장된 전통론(백철)」, ② 「어떤 뼈대·인테리의 비극(이어령)」, ③ 「인생과 무대는 어디로(조연현)」이 그것이다. 이 평문들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비평작업』에 수록되어 있는 임중빈의 「침몰해가는 한국적 주제」와 주섭일의 「작가의 현실참여와 휴머니즘」에서 펼쳐지는 논리와 상호작용하면서, 이들의 문제의식이 명료하게 발성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문제의식인가.

### 1. 「위장된 전통론」의 경우 - 문인들의 체제협력 비판

이 글은 백철이 중앙대 논문집에 발표한 「전통논을 위한 서설」(1961. 12)을 논의의 중심으로 하면서, 전통에 대한 백철의 인식박약을 공박한 후 그의 비평을 “사대주의적 모방품이자 구호물자식 전통론”으로 규정하면서 그 비평의 딜레탕트적 속성을 비판하고 있다.

백철의 이 글은 시기적으로는 5.16 쿠데타 직후에 쓰여진 것인데, 이것이 ‘정오평단’에 의해 집중적인 비판의 표적이 된 데에는 발 빠르게 시국에 대처하는 백철의 처신이 이들 젊은 세대를 자극한 것도 빌미가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전통에 대한 백철의 논의 자체는 느슨하게 규정하자면, 전통의 현대적 계승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문화유산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어려우니, 전통으로 규정할 수 있을 최소한의 범주와 작품을 섬세하게 검토하고, 이를 통해 전통의 내용을 가능한 대로 규정하자는 다분히 온건한 주장이었다.

이 정도의 온건한 주장 자체가 젊은 세대에게 격렬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물론 백철이 전통론을 전개하면서 두루 인용하고 있는 T. S 엘리엇 이후의 전통에 대한 이론들이 서구의 전통론을 박물학적으로 수집한 것에 불과한 지적 식민주의의 한 발현양상이라는 이들의 비판은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사실 때문에 “펜을 꺾으시오”라는 근본적인 부정으로 나아간 것은 아

니다.

문제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었는데, 요컨대 백철의 전통론이 결국은 5.16 이후의 시국에 문화적으로 협력할 것을 공공연히 표명한 다음과 같은 발언들에 있었다.

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시대적 현실에 눈을 돌릴 때에 신정부 이후 그 과감한 정책과 실천에 대하여 그 현실이 급격한 변성을 보이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 문학분야에서도 실은 큰 관심을 가지고 그 방면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뜻하는 것처럼 그 성과가 곧 눈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다른 데서도 언급한 바 있는 것과 같이 실제의 현실과 문학의 현실은 그것이 곧 바뀌질 수 없는 질적인 상이한 거리가 중간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다. 위정하는 편에서 보면 그 점이 불만일 수도 있어서 현실적인 디테일을 그대로 옮겨 적역하면 문학이 되지 않느냐는 성급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일리도 인정하여 우선 매스컴의 문학분야에선 일차 계몽성을 주조로 하여 전환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한 일이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문학에서는 너무 안이한 적역적인 타협을 거부하고 더 유기적인 의미의 반영이 되도록 그 디테일에 대한 선택과 음미에서 깊이 현실을 이해하고 더 본질적으로 그것을 높이 비약시키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우선 커다란 방법론 같은 것이 제안되면 하는데, 그 방향으로 높이 모색의 날개를 펴야 할 것인가. 마침 일전에 어떤 주간지에서 르네쌍스에 대한 해설적인 기사를 청탁해 왔을 때에 나는 하나의 이미지를 얻었다. 오늘 현실과 우리 문학과제 그것과 연결되는 어떤 과거의 패턴이 이때 분명한 암시가 아니지만, 마들렌느 차 맛과 같이 은근하게 하나의 이미지를 이끌고 르네쌍스 시대로 돌아가게 한 것이다.<sup>11)</sup>

나) 그러나 1945년의 민족해방의 새벽은 확실히 르네쌍스적인 운동을 우리에게 제시해 온 커다란 역사적 기회였다. 또 그 때 민족문화·민족문학을 메인 타이틀로 한 것을 볼 때에 당시의 문화 예술의 운동방향이 그쪽으로 의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찌해서 그러한 커다

11) 백철, 「전통론을 위한 서설」, 『중앙대 논문집』, 제6집, 1961, 1-2쪽.

란 역사적 기회와 모처럼의 문화운동의 의식이 실지의 르네쌍스적인 기운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되어 버렸는가 하는 반문인데 거기에는 해방 뒤의 정치혼란의 현실이 그 일을 어렵게 만든 이유도 크지만 동시에 이때만해도 역시 우리 문화운동을 위한 주체의식이 약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가깝게는 4.19의 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 사건의 주체적인 의미가 강조된 것도 있어서 다시 하나의 르네쌍스적인 기운을 발휘할만한 기회였으나 역시 뒤이어 온 정치적인 타락과 혼란에 의하여 문학예술의 사람들에게 그 의욕을 북돋우게 하지 못한채 지나 오다가 다시 이번 5.16의 정변과 더불어 이제 우리 문학은 일정한 신정세 속에서 문화예술운동의 과제와 직면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 직언한 바와 같이 오늘의 문화예술을 하는데 있어서 직접 그 정치현실과의 반영을 목표로 하는 대신에 그 현실방면의 주체성의 의미와 그 정신을 문화운동의 뜻을 개역하여 우리 고전과 전통에 대한 부활·계승·발전의 방향을 취해 보는 것이다. 그것을 가령 르네쌍스운동 운운의 언사로 과장하지 않더라도 하여튼 이 기회에 한번 우리 과거 문학운동사의 과정들을 일차 총비판하면서 이번 기회야말로 우리가 자기의 주체성을 찾아서 새출발을 하기 위한 확실한 자세를 찾아 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sup>12)</sup>

백철의 「전통론을 위한 서설」에서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구에서는 르네쌍스를 거치면서 고전론이 부흥하였고, 그것이 전통론으로 이어지면서 문화의 발전이 있었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고전에 대한 관심박약은 물론이고 전통에 대한 관심조차도 취약한 상황에 있다. 그런데 5.16 쿠데타 이후 신정부가 수립되었다. 위의 인용문에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나듯이, 백철은 5.16 쿠데타를 한국적 르네쌍스의 출발점이라고 인식하는 시각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태가 한국의 고전을 재발견하면서, 전통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을 심화시켜 민족문화의 주체성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백철의 이러한 주장은 그가 이 논문에서 제출하고 있는 다채로운 이론적

12) 백철, 위의 글, 43쪽.

주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것은 문학이 현실정치의 격변을 추수하고 그러한 정세에 타협하는 것과 민족적 고전을 발굴하고 전통을 창안하는 일을 기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군사정변을 재빨리 합리화하는 논설을 기민하게 학계에 제출함으로써 오늘의 시점에서 보자면 어용지식인의 추한 면모를 뚜렷하게 보여준 셈이 된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체제협력에의 자세를 보여준 것은 백철만이 아니었고<sup>13)</sup>, 실제로는 구세대 문인집단 대부분이 보여주었던 태도였다. 그런데 5.16 직후의 문단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면, 실제로는 쿠데타세력의 주도 하에 문화의 자율적 질서가 파괴되고 정치논리에 의해 문단이 재편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른바 문협정통파를 중심으로 한 한국문학가 협회와 백철과 모운숙, 김광섭 등의 구세대 문인들이 집결했던 자유문학가협회가 단일조직인 한국문인협회로 통합된 것이 1961년 12월 30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단조직의 재편은 구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부가 1961년 6월 17일에 공포했던 포고령 제6호에 기반하고 있었다.<sup>14)</sup> 이에 근거하여 종래의 사회, 문화, 예술 단체는 해산되고 국가 주도의 단

13) 가령 조연현의 다음과 같은 5.16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이른바 구세대 문인들의 체제협력에 일반화의 궤도를 밟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장군의 지도로 한강을 넘어온 일군의 군대는 무능과 혼란 속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위험한 우리의 조국과 현실 앞에 하나의 질서와 방향을 던져 주는 신호가 되었다. 혁명의 성공으로 조국의 새로운 건설은 촉진하게 되었고, 혼란은 질서를, 분열은 통일을 가져왔다. 이것이 비록 군에 의한 타율적 요소가 더 많이 개입된 결과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정도로 4.19 이후 과정민주화집권 등을 겪는 동안의 이 나라의 모든 형편은 모든 분야가 위험한 혼란 속에 있었던 것이다. 혁명의 공과에 의한 이러한 새로운 현실적 조건은 다른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문단에도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게 했다. 그 새로운 질서란 문화계의 모든 파벌과 영웅주의를 해소시키는 각 분야별 단일단체의 구성이었다.” 조연현, 「내가 살아온 한국문단」, 『조연현문학전집』, 제1권, 342-343쪽.

14) 홍기돈, 「김동리와 문학권력」, 문학과비평연구회, 『한국문학권력의 계보』,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4, 147쪽.



일조직으로 인위적인 재편의 시기를 맞게 되는데, 바로 이 시기에 백철은 군사정부의 문화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한국의 르네상스의 시발점으로까지 확대해석하면서 체제협력을 노골화했던 것이다.

이러한 백철의 비평적 자세가 4.19 혁명의 역사적 기억을 잇을 수 없는 이들 신세대 비평가들에게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음은 그런 점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게다가 이들 ‘정오평단’ 동인들은 앞에서 밝힌 것처럼 동세대의 다른 문인들보다도 비평의 사회성에 대한 자각이 높은 수준에 있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의 강도 또한 강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 현실이 급격한 변성을 보이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 문학분야에서도 실은 큰 관심을 자지고 그 방면으로 접근해가고 있는 것”의 사실여부에 대한 문제를 검코해 볼 때 비평가의 안가(安價)한 현실 옹호 태도를 슬퍼하지 않을 수 없으며 5.16 이후 어디까지나 그러한 사실은 아니라는 역현상을 들고 그 오단을 지적해 두며 굳이 이러한 이유를 언급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는다. 누구나 시대적 현실이 있다. 작가와 시대적 책임 같은 문제에 대해서 백철비평도 어느 누구 못지 않게 앵무새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의를 표한다.

(.....)이상은 5.16 군사혁명이라는 급전된 현실에 비추어 르네상스적인 문화예술운동을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그의 이론 그대료를 옮겨 놓은데 불과하다. 요컨대 “우리 문학예술의 사람들”은 “고전문학전통의 합리적인 계승의 일”을 못했으며 고의적으로 “전통계승의 크고 작은 기회를 사보타주”해온 책임을 깨닫고 이제는 혁명대열에 참가하여 문화예술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러한 문학인의 현실파악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보다는 작가가 현실에 대하여 부단한 집념으로써 대결하여 그의 문제해결의 길을 찾는 것이 적어도 문학예술인의 올바른 창조가 아닐까. “문학예술에 있어서도 실은 큰 관심을 가지고 그 방면으로 접근”해야 한다면, 이는 백철식 고전발굴의 한 착상이겠지만 한편 이러한 수단만으로는 한국문학의 종말론적 결론이 될 위험성을 내포한다.<sup>15)</sup>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정오평단'은 쿠데타 세력에 문화적으로 협력하는 구세대 문인들에 대한 비판을 백철의 체제협력을 표방한 평문을 통해,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우회적 비판이라고 했지만 기실 그것은 당대의 문인사회 전체의 이완된 작가의식에 대한 통렬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다. "혁명대열에 참가하여 문화예술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백철 류의 주장은 결국 "한국문학의 종말론적 상황"을 야기할 뿐이라는 것이 이들의 냉혹한 진단이다. 이러한 진단과 함께, 이들 『비평작업』 동인들은 문학과 현실의 정치적으로 올바른 관계에 대한 자신들의 시각도 밝히고 있다. 즉 문학인의 올바른 현실파악이란 "작가가 현실에 대하여 부단한 집념으로써 대결하여 그의 문제해결의 길을 찾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이 현실 대결적 또는 비판적 문학의식이야말로 이들이 『비평작업』에서 강력한 발성음으로 제기한 참여문학론의 핵심이었다. 그럴 때 이들의 문학적 참여는 5.16 쿠데타라는 정치적 반동, 그 반동을 뇌동적으로 추수하는 기성문단의 체제 협력적 태도 모두를 문제삼는 비판적 인식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4.19 세대의 현실참여적 문학태도의 원형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어떤 뻘뻘 인테리의 비극」의 경우- 순수문학이라는 테르미도르

1960년대 신세대 비평가들에게 최초의 비평적 매혹을 선사한 것은 이어령이었다. 그들은 이어령의 비평을 통해 저항문학 또는 문학의 현실참여에 대한 강렬한 상상력을 충전할 수 있었지만, 기묘하게도 이어령 그 자신이 참여문학을 부정하게 되면서 이어령은 강력한 부정의 대상이 된다.<sup>15)</sup> 이 평문의 도입부에서 '정오평단'은 이어령에게 "지금 당신은 손에

15) 「위장된 전통론」, 『비평작업』, 8-9쪽.

16) 염무웅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선대 비평가 중에서 제일 영향을 받았달까 매력을 느낀 사람은 역시 이어령 씨죠.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말경의 이어령 씨는 저항문학의 기수였어요. 「왜 저항하는가」, 「작가의 책임」 등 사르트르의 앙기주망 이론에 근거해서 작가의

잡치지 않는 허공을 부여안고 공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테르미돌(반동-인용자)의 충실한 파수병이 되어 당신은 관중 없는 무대에서 인형처럼 코미디를 외치고 있”<sup>17)</sup>다며 일침을 가한다.

‘저항의 기수’였던 이어령이 ‘테르미돌의 충실한 파수병’으로 전략한 까닭은 무엇일까. 거기에는 이어령의 비평적 입장의 선회라는 문제가 놓여 있다. 이어령은 최근에 출간된 자신의 문학전집의 서문에서 “나는 문학의 주류가 되기를 거부하고 늘 우상의 파괴를 지향해 온 문학 편에 서고자 했다”고 말한다.<sup>18)</sup> 문제는 이 비주류 정신의 성격일 것인데, 이어령은 이를 주조이념의 편향에 대한 반동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어지는 문장에서 그가 “순수문학이 문단을 지배할 때 나는 반순수문학 이른바 참여문학을 주창했고, 거꾸로 민중이나 참여가 대세를 이룰 때 나는 그와 정반대되는 문학의 순수성을 위한 이론을 폈다.”<sup>19)</sup>는 주장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어령의 주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입장선회가 자신의 비평을 전개해가는 과정 속에서 제기되는 변화의 내적 필연성에 의거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상황적 변화에 대한 반동의 형식으로 제기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평적 입장의 변모로 보기는 힘들고, 엄밀하게 말하자면 문단적 상황의 변화에 대한 반동형성으로 규정할 수 있는 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단적 상황 변화에 따른 반동이라는 것에도 문제는 있었다. 우선적으로 이어령이 파악하고 있는 당대의 문단의 변화라는 것

---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저항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글을 썼었죠. 이어령 씨의 첫 평론집 제목이 『저항의 문학』 아니어요? 거기에 매력을 느꼈고요. 하지만 지금 볼 때에는 역겨워요. 왜래어와 외국어도 너무 많고, 또 이어령 세대만 해도 일본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본 문체 냄새가 많이 나지요. 그러나 당시 읽을 때는 아주 매력적인 문장이었죠.” 김운태·염무웅 대담, 『1960년대와 한국문학』, 『증언으로서의 문학사』, 깊은샘, 2003, 407쪽.

17) 「어떤 뽀뽀 인테리의 비극」, 『비평작업』, 14쪽.

18) 이어령, 「외로움 속에 계속되는 문학적 저항」, 『저항의 문학』, 문학사상사, 2003, 5쪽.

19) 이어령, 위의 글, 같은 쪽.

이 그의 생각만큼 보편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주류적 경향성을 확고히 보여주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물론 그가 순수문학에 항의하면서 참여문학론을 강렬하게 제창했던 1950년대의 문단은 이어령의 비평적 입장에 동의하게 만든다. 문제는 그의 두 번째 선언, 요컨대 참여문학론으로부터 급격하게 순수문학론으로 이행하게 되는 시기의 문단상황이 그의 주장처럼 참여문학 일색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사정은 이와 정반대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4.19혁명 직후 일시적으로 문학적 참여에 대한 관심이 고양된 것은 사실이고, 또 일군의 보수적인 문단조직 가령 '자유문협'이 해체되는 식의 외양적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문학』 중심의 한국 보수주의 문학은 건재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흥미로운 것은 4.19 직후의 이어령의 태도변화이다. 그는 혁명 이후의 한국사회에서 오히려 민중들의 정치적 개입, 문인사회의 정치적 변화에 우려를 표명하는 글을 한 신문지상에 발표하면서, 저항문학의 종언을 강력하게 암시한다.

슬픈 카스토르여--그대는 또한 정치적인 혁명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마치 빙산을 향해 터지는 '다이내마이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카스토르여--그대는 4월의 보도, 그 봄의 보도 위에서 총성과 연막탄 속에서 죽어간 젊은 영혼을 생각하고 울 것이다. 그러나 슬픈 카스토르여, 그들의 죽음은 또 다른 손에 의해 매장되고 헐리고 이용되고 하는 그 운명을 울어야 한다. 빙산은 다이내마이트에 의해 빼개졌지만 다시 그 모진 환파는, 또 다른 그리고 보다 견고한 빙산을 만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카스토르여--가난한 나라의 카스토르여--그 일시적인 파괴적인 비약(?)을 믿어서는 안 된다. 빙산을 녹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훈기의 바람을 불어야 한다.

카스토르여--이 계절의 이행이 그 해빙기가 결코 정치나 직접적인 파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것이 지루하고 아무리 더딘 것이라 할지라도 계절의 변화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계절의 변화는 행복한 카스토르여, 그대의 호흡, 그대의 상흔, 말하자면 그대의 금(金)의 언어에 의해서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sup>20)</sup>

이 글에서 이어령은 동시대 문인들을 카스트르로 호명하면서, 정치적 비약을 믿지 말고 언어의 탐구에 집중하라는 선언을 하고 있다. 일반론의 차원에서 받아들일 경우, 정치질서와 상대적으로 거리를 유지한 채 전개되는 문학의 자율성에 대한 옹호는 그런 대로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당대 문단의 상황 속에서 이어령의 선언이 『비평작업』 동인과 같은 후배세대들에게는 참여문학론을 포기하라는 선언처럼 들렸다. 실제로 이어령은 이 선언을 끝으로 참여문학론으로부터 급속히 이탈해 나갔다. 이런 이어령의 비평적 입장선회를 신세대들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들은 4.19혁명을 겪으면서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발견해냈고, 한국 문단의 체제융합적 보수성을 확인했다. 이승만 정권에 아부했던 지식인과 문인들의 기회주의적 정치욕을 규탄할 근거를 찾았고, 그것은 한국문학은 물론 현실에 대한 전향적 인식을 이들에게 심어주었다.

L형, 나라가 독립되었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역시 우리의 지배자는 이조시대의 양반계급이며 왜정시대의 팔자 늘어진 후손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봉건 의식 뿐이며 외세에 맹종하고 아부하는 습성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거의가 민의원이네 장관이네 하며 완전한 새로운 계급을 형성하여 위장된 민주주의, 위장된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대중을 착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표면적으로 외세에 완전히 의탁할 수 없었던 그들 이름 없는 양반계급들은 이승만이란 새로운 우상을 떠받들어 지배욕을 만끽하였으며 모든 것은 실천성 없는 반공(反共)이란 구실하에 무시당하고 또 이용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민족의 신화가 어떻게 창조될 수 있겠습니까?<sup>21)</sup>

20) 이어령, 「현실과 문학인의 위치-오늘의 작가에게 말한다」, 『동아일보』 1961. 2. 14; 「저항 문학의 종언-4.19 이후 문인들에게 주는 글」, 『저항의 문학』, 문학사상사, 2003, 441쪽.

21) 「어떤 뿌터 인테리의 비극」, 『비평작업』, 17쪽.

위의 간략한 인용문에서도 이들의 문제의식은 잘 드러난다. 식민주의 세력과 결합한 지배계급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지식인들의 이승만 정권에의 야합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또한 외세의존 세력에 대한 비판은 그것의 극복이념으로서의 저항적 민족주의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동시에 이들의 비판은 양반 계급 또는 유한 호족 중심의 현실질서를 비판하면서 평민 중심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은 4.19 혁명을 이들이 일종의 민주주의의 계급적 주체로서의 평민계급의 성숙 또는 근대적 시민계급의 형성과 관련하여 사유하고 있었음을 환기시킨다.<sup>22)</sup> 이러한 사실과 함께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당시로서는 비판 자체가 봉쇄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반공이데올로기를 상대화하면서, 우회적으로 이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들이 제기하고 있는 참여문학론은 이후에 미학적으로는 리얼리즘론, 주조이념의 측면에서는 저항적 민족문학론으로 전개되는 일단의 관점을 맹아적 형태로나마 견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들 『비평작업』 동인들이 이러한 시각을 체계적으로 개진한 것은 아니었고, 이조차도 싸르트르의 참여문학론을 전유하는 방식을 통해 제출한 것이 사실이지만, 문학의 현실참여의 근거를 한국사의 연속성 속에서 파악하는 동시에 문학의 정치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 이런 관점에서 있었던 『비평작업』이었기에, 4.19 혁명 이후에 이어령의 순수문학으로의 돌연한 비평적 입장선회가 테르미돌, 즉 문학적 반동으로 보였던 것이다.

22) 실제로 이들은 근대적 시민혁명의 결핍을 한국적 근대성의 한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일찌기 서구처럼 우리는 쌍 귀로뜨(San-culotte) 하나 못 가져 시민계급을 형성할 수 없었던 것이며 따라서 시민혁명이란 존재할 수도 없었던 가운데 민족의지에 의함이 아니라 외국산 해방을 맞았고 처음으로 민주주의란 외국산 양복으로 이 나라를 단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의 글, 같은 쪽.

## 3. 『인생과 무대는 어디로』의 경우- 상황 없는 『현대문학』 비판

이 평문에서 비평작업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조연현과 그가 주간으로 재직하고 있던 『현대문학』의 상황 없는 순수문학의 허구성이다. 주지하듯 현대문학은 1955년 창간 이후 당시의 문단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매체였으며, 특히 이 잡지의 주간인 조연현은 김동리와 함께 순수문학을 기조로 한 문단의 좌장 격에 속한 인물이었다.

『현대문학』은 창간 당시부터 ‘순수문학’의 표어를 노골적으로 강조하면서, 문단의 보수화된 위계질서를 제도적으로 구조화하는 역할을 했다. 물론 『현대문학』이 창간되고 발행되던 이 시기에도 『문학예술』이나 『자유문학』 등의 순문예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종합지이긴 하지만 『사상계』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사실이나, 당대문단의 위계적 질서의 꼭지점에 조연현과 『현대문학』이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대문학』이 당대문단에서 끼칠 수 있었던 영향력의 근거는 우선적으로 발표지면의 문제와 함께 추천제를 통한 신인 등단제도, 그리고 ‘현대문학 신인상’으로 상징되는 문학적 권위를 보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작동시키는 것과 함께, 5.16 쿠데타 이후 일원화된 문인조직인 한국문인협회의 준 기관지적 성격을 띠었다는 점에서 왔다. 요컨대 문학매체와 문인조직의 유기적인 결합과 그것의 위계적 구조화가 『현대문학』을 통해 작동했다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현대문학』의 주간인 조연현의 비평은 당대 문단의 주류적 이념을 상징하는 것으로 『비평작업』 동인에게는 간주되었다.

그러나 과연 조연현의 비평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다소 막연함을 면치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제 아무리 화려한 수사적 표현과 양적 방대함을 통해 표출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본질적인 요소를 추출하면 결국 인상주의의 또 다른 표현인 생리주의로 귀결되거나<sup>23)</sup>, 『비평작업』 동인은 이를 ‘인생과 비평’ ‘위장된 예술주의’

23) 김명인은 조연현의 생리주의 비평을 ‘비합리주의적 세계관’으로 규정한다: “우리

등의 표현을 통해 거세게 공박하고 있다. “밖의 상황 또는 내가 발 딛고 있는 상황을 깨끗이 망각하거나 체념해도 그만이며 내심의 인생과태도만 견지하면 그만인”<sup>24)</sup> 조연현 비평과 그가 주간으로 재직하고 있는 『현대문학』의 폐해가 극심하다는 것이 이들의 진단이다. 특히 이들은 『현대문학』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문학적 보수주의에 심각한 회의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

얼마쯤의 반공과 민족주의와 인간옹호를 취지로 내세우는 이상의 역할을 못하는 불행을 국내 신문·잡지계는 겪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사상의 구체적 노선을 가지지 못하는 실정에서 더군다나 문예지의 경우, 올바른 비평활동의 부진 탓도 있지만 문학적인 뚜렷한 선언이나 이념에 입각하는 일 없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 무이론과 무사상적 관점이 빛는 파오는 가판이다. 이러한 책임을 유독 조연현씨의 문예지에만 추궁할 일이 아닌줄 알지만, 문제는 무지와 몰각 속에서 의젓한 권위가 되어질 때 분기하는 목불인견의 현상인 것이다. 일체의 문제의식을 망각하고 있는 『현대문학』지의 편집태도만 하여도 주견과 편견의 극치인 느낌이 없지 않다. 우리는 새삼스레 문학지의 사명을 강조하려 않는다. 요는 인생과적 상아탑적인 범주에서 파벌의식과 세대의식 같은 것을 일소하고 좀더 초월적인 입장에 설 수 있겠느냐? 묻고 싶다.<sup>25)</sup>

위의 인용문 가운데 “얼마쯤의 반공과 민족주의와 인간옹호”라는 표

---

비평사에서 조연현의 비평의식과 여타 비평의식을 변별하는 가장 명확한 대답은 합리주의 대 비합리주의이다. 조연현만큼 정열적으로 합리주의적 세계관을 비판·공격하고 비합리주의적 세계관을 옹호한 비평가는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심지어는 그와 오래도록 동지적 관계에 있었던 김동리조차도 자신의 입장을 휴머니즘·민족주의 등 근대 합리주의적 개념들 속에서 해명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그의 일관된 비합리주의는 이례적인 것이다.” 김명인, 『조연현, 비극적 세계관과 파시즘 사이』, 소명출판, 2004, 13쪽.

24) 『인생과 무대는 어디로』, 『비평작업』, 24쪽.

25) 위의 글, 24-25쪽.



현이 인상적이다. 이들 『비평작업』 동인들은 이러한 사항을 강조하는 당대의 문화사적 검열체제를 의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 그러나 이들에게 그것이 정당한 문예지의 이념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조연현과 『현대문학』을 비판하면서, 이들이 지속적으로 현실상황에 대한 무감각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당대로서는 열린 논의가 불가능했을 반공의 문제를 이들은 꾸준히 환기시키면서, 다른 이념과 현실에 대한 분석적 시선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있음은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가령 『비평작업』의 「편집후기」 직전에 있는 「문단직언」이라는 난에서 이들은 당시에 일본에서 발간되어 화제를 모았던 마즈모토 세이쥬(松本清張)의 『북의 시인』<sup>26)</sup>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 논조가 심상치 않다. 요컨대 “우리는 『북의 시인』이란 소설에 나오는 임화란 사람은 꽤 낯선 이방인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은 “우리 세대가 받아들인 교육의 덕분”이라고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sup>27)</sup> 반공교육에 따른 문학사의 단절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비평작업』 동인들은 『현대문학』의 문단사적 권위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시점에 이르면 사실상 한국의 문단은 『현대문학』 중심의 권위가 의심의 여지 없이 확고한 것이 된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당대 문단의 열악한 매체환경에 기인한 바 크지만, 이와는 별도로 『현대문학』이 창간시점부터 추진했던 ‘신인추천제’가 신진문인들의 문학적 감수성과 이념을 통어하는 지배적인 제도관리 시스템으

26) 일본의 추리작가인 마즈모토 세이쥬에 의해 쓰여진 임화를 모델로 한 소설이다. 소설은 해방직후인 1945년 10월의 시점에 시작되어 1953년 북에서 사형선고를 받게 되는 시점까지의 임화의 사상활동과 상황의 변화에 따른 내면풍경을 그리고 있다. 장르 자체가 소설인 만큼 임화의 행적을 둘러싼 논란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겠으나, 당시의 한국문단에도 이 저작은 상당히 문제적으로 읽혔던 것 같다. 이 책은 1987년 6월 항쟁 직후에 김병걸이 번역하여 『북의 시인 임화』, 미래사, 1987로 한국에서 출간된 바 있다.

27) 「한국문학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비평작업』, 134쪽.

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현대문학』은 창간 시점부터 시에 서정주·박두진·유치환, 소설에 박종화·염상섭·계용목·황순원·김동리, 평론에 백철·곽종원·조연현, 희곡에 유치진·오영진 등의 중견문인들을 고정 추천위원으로 배치하고, 신진문인의 등단 심사를 제도화했다.

『비평작업』 동인들에게는 이처럼 문단에서 확고하게 지위를 점하고 있는 기성에 의한 신인선발 제도가 궁극적으로는 『현대문학』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적 보수주의를 재생산하는 기제일 뿐만 아니라, 문단의 파벌의식을 영구화하는 일종의 문학권력이라는 비판의식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들을 포함하여 이른바 1960년대 신세대 문인들이 이전 세대의 문인들처럼, 문예지를 통해 등단하는 방법을 긍정하지 않고, 동인지 활동이나 신춘문예라는 제도를 통해 등단하는 것을 선호했던 것은 이러한 세대의식과 파벌의식으로부터 독립적인 비평의 태도를 견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4.19혁명을 체험한 이들 세대에게 문단의 구세대들이 보여준 기성정치에의 야합적 태도는 너무나 선명한 것이었고, 때문에 결코 긍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기성의 문학장과 그 메커니즘이 혁신과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구체제로 느껴졌을 때, 이들은 『비평작업』과 같은 동인지를 통한 새로운 문학적 실천의 출구를 기획하는 것이 자신들의 문학적 신념을 상처 받지 않고 견지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으로 느꼈던 것 같다. 물론 이후의 문학사는 이들의 기획이 옳았음을 증명해준다.

#### IV. 몰주체적 순수문학 비판 및 참여문학론의 제창

『비평작업』 동인이 파악한 당대 문단은 주체성 없는 순수문학의 영토

였다. 당대문학의 몰주체성이야말로 이들이 타기하고자 했던 우상의 언어였고, 그들은 자신의 비평을 가능한 한 현실의 중심에 육박하는 것을 통하여, 주체적 언어를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주체적 언어의 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이 파악한 것은 전후 프랑스 문단에서 융성했던 실존주의와 휴머니즘이었다. 그것을 이들은 ‘참가문학’, 오늘의 용어로는 ‘참여문학’으로 명명했다. 이들은 작가의 현실참여야말로 1960년대의 한국문학의 새로운 문학적 이념형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요컨대 현실태(real type)인 순수문학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지양함으로써, 이들은 이상태로(ideal type)서의 참여문학에 다가갈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이들이 『비평작업』을 통해서 현실태로서의 순수문학의 몰주체성을 공박하는 작업을 벌이는 한편, 그들이 이상태로 여기는 참여문학론의 이론적 근거를 찾고자 했다. 그것이 전후 사르트르의 문학적 실천이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순수문학을 타자화함으로써, 이를 통해 참여문학론의 주체성을 촉구하는 이들 젊은 비평가들의 담론제기 방식은 타자와의 경계구획을 통한 비평의 주체형성 기제를 잘 보여준다. 임중빈의 「침몰해 가는 문학적 주체」가 순수문학의 타자화에 그 시선이 닿아 있다면, 주섭일의 「작가의 현실참여와 휴머니즘」은 프랑스 실존주의의 이론적 참조를 통한 주체화의 기제를 잘 보여주는 평문이며, 『비평작업』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이 내포된 작업이라는 점에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임중빈의 논의로 우리의 시선을 드리워 보자. 앞에서 살펴보았듯 ‘평단소송’을 통해서 『비평작업』 동인들은 동시대의 비평적 이상이라 할 수 있을 백철, 이어령, 조연현 등이 보여주고 있는 비평적 논리의 허약성과 반동적인 순수문학으로의 퇴행, 또 체제협력적인 문인들의 기회주의적 생존방식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들의 비판이 거기에서 한정된 것은 아니었고, 이제는 전후작가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간다. 이 평문에서 임중빈이 비판의 대상으로 설정한 작가는 김동리·황순원·선우휘·

장용학 등으로, 앞의 두 사람은 순수문학의 전설시대를 살고 있고(순수파), 뒤의 두 작가는 전설 이후의 전후문학의 우상으로 굴림하고 있는데(전후파), 이들은 공히 주체성이 결여된 문단의 권위 안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임중빈의 비판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만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 김동리: “동리의 순수문학은 현실무화의 고차원적 결정체 곧 인간을 운명이나 신(자연)에 귀착시키는 의식적인 노력의 소산이며 그런만치 비현실·비인간의 영토로 남는다.”<sup>28)</sup>

2) 황순원: “소설을 빌린 리리시즘의 테마, 산문정신이 결여된 휴식의 지평선 그리고 아르카디아적인 맹목상태의 긍정적 세계관. 미래도 인간확신도 말해 주지 않는 순수의 테마. 이것들은 탈피되어야 할 순원의 순수성이 아니고 무엇일까.”<sup>29)</sup>

3) 선우휘: “그러나 그가 그려준 세계는 행동의 허세에 불과하다. 행동이 있는 게 아니라, 고작 무풍지대를 벗어나려는 안간힘이 충만될 뿐이다. 주인공의 북도(北道)적 기질이 곧 행동철학일 수는 없다.”<sup>30)</sup>

4) 장용학: “용학이 그토록 작품 속에서 인간학 강사 노릇을 착실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세계엔 정작 인간이 없다는 이 비극--이것이 실로 긴요한 문제란 말이다. 작품은 언제나 사상의 정서화 없이는 ‘사상의 리얼’이 불가능하며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의 집요한 인간발견 없이는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하고 만다.”<sup>31)</sup>

1)과 2)의 비판은 순수문학을 개관하는 임중빈의 비평적 의식을 잘 보여준다. 임중빈의 관점에서 볼 때, 김동리와 황순원으로 상징되는 순수

28) 임중빈, 「침몰해가는 한국적 주제」, 『비평작업』, 34쪽.

29) 임중빈, 위의 글, 38쪽.

30) 위의 글, 42쪽.

31) 위의 글, 44쪽.

파들은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회피하고 신화의 세계로 퇴각하거나 산문 정신이 결핍된 우수의 리리시즘을 보여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3)과 4)의 전후파 작가들이 이들의 한계를 극복한 것은 아니다. 물론 선우휘의 소설에는 어떤 행동주의적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행동을 뒷받침할 사상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 임중빈의 비판이다. 행동은 있으나 그 행동을 뒷받침할 정치적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다. 장용학이라고 해서 비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장용학의 소설은 흔히 관념소설로 평가된다. 그런데 임중빈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관념과 행동의 왜곡된 분열에서 나타나는 졸렬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졸렬함을 위장하고 있는 것이 소설적 기교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장용학 개인의 한계라기보다는 전후문학 일반이 갖고 있는 보편적 문제점이라고 임중빈은 주장한다.

요컨대 임중빈은 순수파는 물론이고 전후파를 포함한 당대의 문학 전체가 현실과의 긴장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탈해 있다는 점에서 몰주체적 상황이라는 비판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거늘 작가는 현실에서 줄곧 외출중이거나 사회에 대하여 공포의 시녀 신세이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점을 추구하기 전에 벌써 미화하려만 든다. 해서 한국작가야말로 거의 모두 팔자 좋은 예술광이라는 영예를 누릴 만하다. 그들에게는 정작 생활현실에 밀착된 작품세계 또는 다 같이 괴로워할 문제의식 대신에 서푼짜리 각본이 산적되어 있는 실태다. 그들에게는 도시 문제가 없다.

‘전설의 시대’가 끝나기 앞서 새로운 ‘우상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스스로의 현실 앞에 나서서 정면대결하기를 체념의 미로 캄프라취하던 군상들, 그리고 이제껏 제대로 문제에 뛰어들지 못한 채 큰소리만 치다가 그럭저럭 맥빠져가고 있는 다른 군상들이 아직까지 우리 문학을 좌우하고 있는 현황은 무엇을 말해주는가.<sup>32)</sup>

32) 위의 글, 27쪽.

그러나 “생활현실과 밀착된 작품세계”의 구체적인 작동방식을 임중빈은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 대신에 그는 순수파의 문학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운명론과 전후파의 문학에서 나타나는 이념 없는 행동주의와 관념적 폐쇄상황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임중빈은 한국문학이 한국적 주제를 갖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정신의 빈민촌’ ‘사상의 판자집’이라는 자학적인 은유를 통하여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sup>33)</sup> 이것은 임중빈 뿐만 아니고 『비평작업』 동인들 모두가 거의 생리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시각인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조동일이 “우리 모두 날개쪽지라고는 없어”라고 시적으로 탄식하거나, 주섭일이 그들의 시대를 ‘문명의 등화관제 구역’<sup>34)</sup>으로 표현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있다.

이 한국적 현실과 문학에 절망한 1960년대 신세대들에게 하나의 빛으로 다가온 것이 전후 프랑스에서 전개된 실존주의 문학론이었고, 특히 그 가운데서도 이들은 샤르트르의 참가(여)문학론을 새로운 문학적 실천의 준거로 삼았다. 『비평작업』에 게재된 주섭일의 「작가의 현실참여와 휴머니즘」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거니와, 이 평문의 도입부에서 주섭일은 이러한 자기세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뚜렷이 밝히고 있다. 참여문학론이야말로 새로운 문학의 이정표라는 진술이 그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이정표가 있어야 한다. 황무지에 씨를 뿌려야 한다. 그리고 황무지에 비료를 주어 싹을 트게 해야 한다. 이것이 적어도 오늘날 문학인의 가장 중대한 문제이며 또 동시에 의무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최초로 의도한 바의 논제와 다른 것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참가문학을 철저히 캐어 보고 파헤쳐 규명하고 싶었다.<sup>35)</sup>

현실을 ‘황무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흥미롭지만, 그들이 샤르트르

33) 위의 글, 52쪽.

34) 주섭일, 「작가의 현실참여와 휴머니즘」, 『비평작업』, 60쪽.

35) 주섭일, 위의 글, 61쪽.

식의 실존주의를 수용하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두루 알려져 있다시피, 실존주의는 한국의 전후문학의 전개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강력한 파토스적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차대전의 가공할 인간현실을 목도한 유럽의 지식인들, 그 가운데서도 5년여에 이르는 독일점령기를 거쳐야 했던 프랑스의 지식인들은 실존주의와 휴머니즘, 행동주의와 같은 문학적 프로그램을 전후에 강력하게 작동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1960년대 신세대 비평가들에게 수용된 실존주의는 전후세대의 이른바 정신사적 실존주의와는 그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었다. 전후세대들에게 실존주의는 하나의 이념형이라기보다는 막연한 감각의 수준에서 수용되었고<sup>36)</sup>, 니힐리즘과 결합하여 시대적 아우라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막스주의적 실존주의자인 사르트르의 문학적 영향력보다는 까뮈 류의 비극적 세계관으로의 침잠을 포함한 내면편향으로 실존주의가 인식되는 문학적 경향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에 반해, 『비평작업』이 주목한 것은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였는데<sup>37)</sup>, 이들이 사르트르에게서 주목한 것은 ‘정치약’과 ‘사회약’에 대결적 자세를 보인 실천적 휴머니즘이었다. 그들은 동시대의 프랑스 문학이 개인적 휴머니즘과 관조적 휴머니즘에서 사회적 휴머니즘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사르트르에게서 읽어냈다. 그러한 비평적 독법이 진행되면서 그들의 눈에 선명하게 보인 것은 한국사회와 문단의 모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학은 아직도 잠꼬대처럼 실험실 속에서 인간 아닌 유행을 만들고 있을 뿐이다. 도대체 우리 문학은 왜 이래야 하는가? 다시 한번 반성해 보라. 이승만시절에 동면했던 개구리족들이

36) 김윤식, 「사르트르의 무덤을 찾아서」, 『김윤식선집』 제6권, 숲, 1996, 297쪽.

37) 이들의 사르트르에 대한 관심은 매우 깊은 것이어서 루카치와의 논쟁을 담고 있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와 막스주의」(주섭일 역)를 게재하고 있을 정도이다. 사르트르는 물론 루카치 역시 막시스트란 점에서, 반공을 국시로 하는 당대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 평문을 번역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들의 높은 정치적 관심을 짐작케 한다.

우리의 힘으로 독재의 아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야 뻔뻔스럽게도 소위 '저항문학회'인가 뭔가 하는 것을 만들어 저항과 반항이 마치 그들 만의 실천특허인 양 팽과리를 두들기던 그 철면피, 과연 그들은 무엇에 대한 저항이었던가?<sup>38)</sup>

비평가 백철에 대한 비판에서도 체제협력의 문제성을 강렬히 비판한 바 있는 이들이, 다시금 4.19혁명 이후의 문단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이것과 함께 독재의 아성을 무너뜨린 4.19혁명 세대로서의 자의식이 위의 글에서 뚜렷하게 환기되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이런 관심은 자연스럽게 프랑스의 문학과 현실에 대한 이들의 기대를 낳았는데, 요약하면 프랑스의 실존주의, 더 정확하게는 사회적 휴머니즘으로 이행된 문학적 실천이야말로 동시대의 한국문단의 왜곡된 정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력한 이론적 거울이었다. 그 거울에서 이들 젊은 비평가들은 단지 문학만을 발견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프랑스의 문학으로부터 “프랑스의 근대화방식”, 즉 “반봉건적 인간을 주체로 하는 진정한 휴머니즘”을 발견하고자 했다.<sup>39)</sup>

『비평작업』 동인들은 문학을 통한 작가의 현실참여는 시대적 당위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야 할 것은 그러한 참여를 통해서 그들이 쟁취하고자 했던 이상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부분에서 그들은 다시 프랑스를 참조한다.

허지만 오늘의 프랑스의 작가들은 이미 문학이 순수니 예술지상이니 하는 폐곽(廢廓)의 세계에서 뛰어나와 현실 속으로 뛰어들어 가는 것은 한 개의 상식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 프랑스의 작가들은 자기들이 발을 딛고 생활해 나가는 현실, 즉 사회 및 정치적 현실에 시선을 돌려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현실의 악과 부정을 규탄하여 청산하고 저 노력하고 사회정의와 진정한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하

38) 주섭일, 앞의 글, 64쪽.

39) 위의 글, 64쪽.



여 일반민중과 함께 투쟁하고 있다.<sup>40)</sup>

문학과 사회·정치적 현실의 공진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이후 한국문학사에서 전개되는 리얼리즘론의 문제의식을 선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1960년대 중반을 전후한 시점에, 한국의 평단에서 심각하게 전개된 문학의 순수·참여 논쟁을 예감케하는 진술로도 판단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 『비평작업』 동인의 문학적 문제의식에 높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대화’에 대한 인식을 뚜렷이 하고 있는 한편, 그것의 문학적 대응으로서의 현실참여가 다만 문학 내적인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정의와 진정한 민주주의를 건설”한다는 보다 넓은 범위의 문제의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특히 그것이 지식인 중심의 관념주의가 아니라, 현실의 “일반민중”과의 연합적 투쟁을 통해 가능해질 것이라는 변혁에 대한 관심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 카뮈의 내면편향의 실존주의를 비판 극복하고, 대신에 사르트르의 사회적 참여문제를 적극적으로 긍정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들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사르트르의 현실참가가 얼마나 현실을 변혁하는 데 있어 중요한가 하는 문제이다”고 말하는 것은 『비평작업』의 참여문학론의 지향점이 어디인가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요컨대 『비평작업』 동인들의 문제의식은 그것이 다만 ‘순수문학’이나 ‘전후문학’으로 규정되는 문학적 경향성에 대한 이의제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학장을 뛰어넘어 현실의 사회·정치적 변혁의 동력으로 문학과 비평이 작동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4.19혁명을 직접 체험한 세대에 의해 제창된 비평의 정치성 또는 정치적 비평의 가능성과 출구를 모색했다는 점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들이 진

40) 위의 글, 67쪽.

정으로 당대의 문단에 요망했던 참여문학론의 정체였고, 작가의 현실참여를 통해 획득하고자 했던 한국문학의 주체성이었다.

## V. 『비평작업』의 비평사적 의의

『비평작업』은 창간호를 끝으로 더 이상의 비평적 작업이 이어지지 않았다. 「편집후기」에서 이들은 “다음의 『비평작업』은 본격적인 심포지엄을 들고 나올 계획”<sup>41)</sup>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창간호를 내는 데까지는 뜨거운 열정이 개입했을 것이지만, 이미 졸업반에 이른 이들에게는 앞으로의 진로 역시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고, 실제로 이들은 뒤에 신춘문예를 통해 문단에 등단했거나, 다른 지면을 통해 자신들의 문학적 입장을 개진해 나갔던 것이 사실이다.

비록 창간호에 머문 것이지만 『비평작업』이 한국문학 비평사에서 갖고 있는 의미는 적지 않다.

첫째, 『비평작업』은 해방 이후 최초의 비평전문 동인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비평전문 동인지가 출현했다는 것은 비평의 정론성의 강화와 함께, 문학비평의 장르적 자의식이 근본적으로 점검되었음을 뜻한다. 문학사적으로 보면 『비평작업』(1963) 이후 『『문학과지성』 비판』(1987)을 통해 메타비평을 시도한 황국명·민병욱·백하현 등의 동인 그룹이 있었다. 1990년대에 이르면 『비평의시대』(1991)에 이어 『비평과전망』(1999) 그룹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 비평 그룹들은 공히 동시대의 문학상황을 비판하면서, 자기 세대 비평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다.

둘째, 『비평작업』이 이른바 1960년대 신세대 비평가들의 현실인식 및 문학의 현실참여론의 핵심적인 논리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종래의 한국문학 연구에서 『비평작업』의 존재는 거의 인식되

41) 「편집후기」, 『비평작업』, 135쪽.

지 않았다. 동시에 문학의 현실참여 문제의 경우도 『창작과비평』 그룹의 출현과 연동하여 평가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비평작업』은 일찍이 이에 대한 참여한 문제의식을 통해서 1960년대 문단 상황을 재구성하고자 했던 점은 적극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셋째, 『비평작업』을 통해서 이른바 사회적 근대화 논리가 본격적으로 언급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물론 이 역시 프랑스의 실존주의를 경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정치적 현실과 문학이 맺고 있는 유기적 관련성과 민족적 주체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들의 관심은 ‘해방의 근대성’이라고 명명할 법한 인식론적 근대화 논리를 자각하게 했다는 점에서 역시 주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비평작업』을 통해서 당대의 주류문학적 경향과 문학권력의 문제가 비판적으로 검토되는 한 계기를 이루었다는 점도 주목될 만하다. 순수파와 전후파로 이분되어 전개되었던 문단적 상황의 지적 허약성을 공박하는 동시에, 이들은 조연현과 『현대문학』으로 상징되는 주류 문학적 질서와 문학권력의 폐쇄성이 새로운 문학적 경향의 출현과 혁신을 가로막는 구조적 한계로 작동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밝혔다.

다섯째, 이른바 1960년대 신세대의 현실인식과 역사인식, 문학적 고뇌를 가감없이 집단화하여 드러냈다는 점도 주목되어야 한다. 이들은 특히 전후세대와 다른 동세대로서의 자의식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4.19혁명일 터인데,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직접 경험한 세대의 구세대 인식 및 현실에 대한 변혁적 사고의 흔적들이 『비평작업』에는 잘 드러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한국 문학비평사에서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그것은 이 논문의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오늘의 한국문학 연구가 사실에 대한 정밀한 복원에서 출발하지 않고, 현재의 문단상황을 근거로 과거의 문학사를 역

이해하는 전통의 발명 경향에서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단사적 실감과 풍문의 해석학, 현재의 위계화된 문단질서가 이러한 연구자의 초보적인 성실성조차 생략하게 만들었던 사정도 『비평작업』을 잊혀진 잡지로 남겨두었던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근대문학 연구자로서의 회한도 없지 않다. □

주제어 : 순수문학, 리얼리즘, 참여문학, 비평작업, 세대의식

<Abstract>

## An appearance of 1970's new generation critic and participation literary theory

Lee, Myoung-Won

This article is a study on *criticism work* that is a 1970's new generation critic group's magazine.

Most of all, an importance of this magazine is a participation literary theory. In spite of 1970's general literary condition was theory of fine literature's pressure. so that korean literature's ideological circumstance was conservative. *criticism work* denied that condition, radically.

Second, *criticism work* give attention to modernity project gaze with deep interest by literary criticism. And that level caustic at pure literature' conservative ideology and old generation's authority.

Third, *criticism work* dreaming of new condition that literary theory by realism and critical reorganize of contemporary literature field by generation shift. but this project was fail.

But this magazine was a symptom of 1970's literature field into progressive alteration. It is a *criticism work's* historical importance. And the reason why I wrote this article.

Key Words : fine(pure) literature, generation shift, realism,  
participation literature, *criticism work*, generation  
consciousness, progressive alteration